

# 다니엘서 - 번호 32

사자부터 속임수까지: 다니엘 6장과 말세 예언에 대한 심층 탐구

Jeff Pippenger

2023-12-27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서 첫 여섯 장에서 세 번째 선으로서, 일요일 법령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예시한다.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과 세 신실한 자들이 높이 들어 올려져 온 세상이 바라보는 기치를 대표한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방백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모사들과 법관들과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불러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오게 하였다. 다니엘 3:2.

3장에서 세 의로운 자는 절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들의 행동은 그들에게 풀무불의 박해를 가져왔다. 반면 6장에서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 무릎을 꿇었고, 그의 행동은 그에게 사자굴의 박해를 가져왔다. 줄에 줄을 더하듯, 이 이야기들은 일요일 법에 따른 박해를 예배에 관한 결정으로 나타내는데, 두 경우 모두에서 그 결정은 신실한 자들에 의해 이미 내려져 있다. 십사만 사천을 상징하는 세 명과 한 명의 조합으로 대표되는 이들은 박해의 흔들림이 닥치기 전에 진리에 굳게 정착해 있다.

"천사가 말했다. '자기를 부인하라. 너희는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진리를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시간이 있었으며, 우리가 내디딘 모든 걸음은 다음 걸음을 내딛을 힘을 주었다. 그러나 이제 때가 거의 끝나가고 있으므로, 우리가 수년 동안 배워 온 것을 그들은 몇 달 만에 배워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버려야 할 것도 많고, 다시 배워야 할 것도 많을 것이다. 그 칙령이 공포될 때 짐승과 그의 형상의 표를 받지 않으려는 자들은 지금 이렇게 말할 결단을 가져야 한다. '아니오, 우리는 짐승의 제도를 따르지 않겠다.'" Early Writings, 68.

제5장에서는 일요일 법령이 땅의 짐승의 종말과 벽을 통해 들어온 원수들이 가져온 심판을 다루고 있다.

그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약 예순두 살이었다. 다니엘서 5장 30-31절.

6장에서는 사자굴 어귀에 왕의 인장을 찍어 봉한 것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침이 확인된다.

이에 돌을 가져다가 굴 어귀에 놓고, 왕은 자기의 인장과 귀족들의 인장으로 그것을 봉인하여, 다니엘에 관하여 정한 바가 바뀌지 않도록 하였다. 다니엘 6:17.

세 줄 모두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그 시각에 구름 가운데 들어 올려지는 기치의 특징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

그들이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들에게 이르는 큰 음성을 들었다. 그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들의 원수들은 그들을 보았다.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일어나 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졌으며, 그 지진으로 사람 칠천 명이 죽었다.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요한계시록 11:12, 13.

다니엘서 6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 받는 일을 보여 주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다니엘을 죽이도록 왕을 속인 '총리들, 총독들, 방백들, 모사들, 대장들'의 연합체에 대한 징벌을 다루고 있다. 왕을 속인 일(왕은 국가의 상징이다)은 여러 예언적 증인들을 포함하는 중요한 예언 주제이다. 위기가 닥친 뒤에야 다니엘과 세 증인을 의식했던 3장의 느부갓네살이나 5장의 벨사살과는 달리, 위기 이전에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보였던 '총애'는 일요일 법령 위기의 다른 배경을 드러낸다.

다니엘은 다른 두 총리보다 "더 총애를 받았다", 그리고 세 명의 총리는 백이십 명의 방백들 위에 있었다. 다니엘은 주로 총리들과 방백들과 대조되며, 그는 다섯(어리석은 다섯 처녀)로 대표되는 기만의 결탁을 이루는 그 둘보다 더 총애를 받는다.

다리오는 온 나라 위에 백이십 명의 방백을 세워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을 좋게 여겼고, 그들 위에 또 세 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중 첫째가 다니엘이었으니 이는 방백들이 그들에게 보고하여 왕이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 이 다니엘은 뛰어난 영이 그 안에 있었으므로 총리들과 방백들보다 더 탁월하게 되었고, 왕은 그를 온 나라 위에 세우고자 하였다. 그때 총리들과 방백들이 나라의 일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빌미를 찾으려 했으나 아무 빌미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신실하여 그에게서 어떤 오류나 허물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그 사람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다니엘에게서 빌미를 찾지 못하리니, 그의 하나님의 법에 관한 것에서 그를 대적할 것을 찾는 것 외에는 없으리라. 다니엘 6:1-5.

다리우스는 세상의 끝에 열 왕(유엔)을 대표하는 왕을 상대로 자행되는 속임수를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 속임수는 열 왕(유엔)이 음녀(교황권)에 대해 드러내는 미움을 부추기며, 그 미움 때문에 그들은 그녀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만들고," 그리고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태운다."

네가 본 그 짐승의 열 뿔은 음녀를 미워하여 그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를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에 한 뜻을 품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뜻을 같이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넘겨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큰 성이다. 요한계시록 17:16-18.

유엔(일곱째 왕국)은, 비록 그들이 바로 최근에 그녀에게 자신들의 왕국을 넘겨주었을지라도, '짧은 기간'만 통치하기 때문에 교황권을 멸할 것이다.

또 일곱 왕이 있으니, 다섯은 이미 실각했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가 오면 잠시 동안만 머물러야 한다. 요한계시록 17:10.

일요일법이 시행될 때,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인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의 짐승(미국)은 상징적인 70년의 통치를 막 마쳤으며, 그 이사야 23장의 70년 동안 성경 예언의 다섯째 왕국인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의 짐승(교황권)은 잊혀져 왔다.

그 날에 두로가 한 왕의 날수와 같이 칠십 년 동안 잊혀지리니, 칠십 년이 찬 후에는 두로가 기생의 노래처럼 노래하리라. 잊힌 기생아, 수금을 가지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아름답게 연주하고 많은 노래를 불러 네가 다시 기억되게 하라. 칠십 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 위의 세상 만국과 더불어 음행하리라. 이사야 23:15-17.

일요일 법령이 시행될 때, 성경 예언의 일곱째 왕국인 열 왕(유엔)이 통치를 시작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다. 왜냐하면 그때 열 왕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격인 왕이 온 세상을 교회와 국가의 결합인 짐승의 체제에 맞추도록 강요하는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 체제는 짐승의 형상으로 상징된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에게는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사하며, 땅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나온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땅 위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은 그 이적들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사는 자들에게 칼에 상처를 입고도 살아난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더라. 요한계시록 13:11-14.

어린양으로 시작해 결국 용처럼 말하게 되는 땅의 짐승(미국)에 관한 상징의 핵심 요소는 바로 그 말이다. 예언적 맥락에서 '말한다'는 것은 입법 및 사법 당국의 행위를 가리킨다.

"그 나라가 말한다는 것은 그 입법 및 사법 당국의 행위를 의미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3.

미국이 처음으로 어린 양처럼 말했을 때,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하여 교황권과 유럽의 군주들이 가하는 박해를 피해 달아나는 이들을 위한 피난의 땅을 마련했다.

그리고 땅이 여자를 도왔고, 땅이 입을 벌려 용이 자기 입에서 쏟아낸 물을 삼켜 버렸다. 요한계시록 12:16.

상징적인 칠십 년의 끝에 땅의 짐승이 다시 말하되, 이번에는 용처럼, 곧 교황권의 표인 일요일 예배를 강제하면서 말한다. 교황권의 표가 강제로 시행될 때 교황권이 기억되며,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법이 될 때 교황권은 다시 기억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일하며 네 모든 일을 하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 날에는 너도, 네 아들도, 네 딸도, 네 남종도, 네 여종도, 네 가축도, 네 성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도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20:8-11

국가적 배교 다음에는 국가적 파멸이 뒤따르고, 세계를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세 세력이 손을 잡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면서 교황권 제도를 강제하는 법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의로움으로부터 완전히 스스로를 단절하게 될 것이다. 개신교가 그 손을 심연 너머로 뻗어 로마 권세의 손을 잡게 될 때, 또 그 손을 구렁을 넘어 내밀어 강신술과 손을 맞잡게 될 때, 이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 우리 나라가 개신교적이며 공화정적인 정부로서의 헌법의 모든 원칙을 배척하고, 교황권의 거짓과 미혹을 퍼뜨리기 위한

대비를 갖추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사탄의 놀라운 활동의 때가 이르렀으며 끝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Testimonies, volume 5, 451.

"개신교"(미국), "로마의 권세"(바티칸), "심령주의"(유엔)가 일요일법 아래에서 손을 잡을 때, 그들은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끌기 시작한다. 이는 먼저 교회와 국가로 구성되며, 그 관계를 교회가 통제하는 세계 단일 정부의 권위를 세상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땅의 짐승이 동원하는 기적의 능력은 두로의 음녀와 세상의 왕들 사이의 음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짐승의 형상이 "말하도록" 강제한다. 예언적 정의에 따르면, 이는 세계 단일 정부가 입법 기관(뉴욕에 위치)과 사법 기관(헤이그에 위치)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는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은 그 이적들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사는 자들에게 칼에 상처를 입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한다. 또 그는 짐승의 우상에게 생명을 줄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도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한다. 그는 모든 사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냐, 모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가 아니면 아무도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 지혜가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계산하라. 그것은 사람의 수이며,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다. 요한계시록 13:14-18.

땅의 짐승(미국)은 온 세상을 속여, 미국이 주일법을 추진하고 마침내 강제하는 과정에서 형성했던 바로 그 짐승의 형상, 곧 전 세계적 짐승의 형상을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 그 후 그것은 세계 단일 정부에 권한을 부여하여, 사형 및/또는 경제적 제재의 위협 아래 그 법들을 집행하게 할 것이다. 다리오 왕이 속은 사건은 예언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왕들의 기만을 상징하는데, 이는 땅의 짐승이 세계 단일 정부를 받아들이도록 세계를 강제로 굴복시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을 그 체제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논거가 '열방을 격노하게 한 세력(이슬람)은 전 세계적 전쟁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일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교황권의 징표를 강제한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미국이 일요일법을 앞두고 극심한 위기 상태에 빠졌고, 가톨릭의 신에게로 돌아가면 그동안 증가해 오던 경제적 어려움이 끝날 것이라는 해결책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요일법의 때에, 낮은 담 아래로 몰래 들어왔던 원수가 국가적 파멸의 심판을 가져온다.

그때 큰 미혹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이러한 재난을 일으킨다고 사람들을 설득할 것이다. 하늘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킨 그 부류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자체가 범법자들에게 끊임없는 책망이 되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곤경을 탓으로 돌릴 것이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노하게 한다고 선포될 것이며, 이 죄 때문에 재난이 임했고 일요일 준수가 엄격히 강요되기 전에는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넷째 계명의 요구를 제시하여 이로써 일요일에 대한 존중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로서,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과 현세적 번영을 회복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처럼 옛날 하나님의 종에게 가해졌던 비난이 동일하게 확고한 근거 위에서 다시 반복될 것이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았을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열왕기상 18:17, 18. 거짓

고발로 백성의 분노가 부추겨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배도한 이스라엘이 엘리야를 대하던 것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대쟁투, 590.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의 '한 시각'에, 이슬람의 '세 번째 화', 곧 일곱째 나팔이 울리게 되고, 그것은 열방을 분노하게 할 것이다. 이슬람을 향한 그 분노는, 방금 땅의 짐승에게서 실패했던 동일한 공허한 약속을 세상이 받아들이도록 속이는 데 이용될 것이다. 그 공허한 약속은 곧, 교황권의 표로 대표되는 가톨릭의 권위에 복종하면 점점 더 심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그 약속이, 그때 공황에 빠진 세계를 향한 약속으로 다시 사용될 것이다.

전 세계의 국가들이 이슬람이 초래한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단일 정부의 수립에 동의하고 이를 허용하기만 한다면, 안정이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될 것이다. 이슬람은 경전에서 이슬람에 맞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권세로 지목되어 있지만, 그와 같은 결집은 왕들의 궁극적인 기만이다.

여호와와 그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난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장차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그의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리라. 창세기 16:11, 12.

이스마엘은 이슬람교의 영적 아버지이다. 이슬람의 아버지인 무함마드가 7세기에 이르러서야 역사에 등장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대의 육적 백성은 말세의 영적 백성을 대표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와 그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 백성을 세운 이래로 누가 나와 같이 외치며 선포하며 나를 위하여 그것을 차례대로 정하겠느냐? 그들이 장차 올 일과 또 임할 일을 그들에게 알리게 하라. 이사야 44:6, 7.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는 이미 이름이 지어졌고 그의 예언적 역할이 정해졌다. 그의 영적 후손들의 손은 "모든 사람을 대적할" 것이고, "모든 사람의 손"도 "그를" 대적할 것이다. 그리고 진보적 자유주의의 어리석은 가르침과는 달리, 성경은 이스마엘이 "그의 모든 형제들 앞에서 거할 것이다"라고 가르친다. 그들은 주변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이들이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에 항의하며 공격한다. 이스마엘의 영은 "그가" "거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슬람 신앙에 평화로운 부류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코란에서도 지지되지 않는다.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두 총리와 백이십 명의 방백의 기만은, 로마의 통제 아래 세계 단일 정부를 시행해야 할 목적과 긴급성이 '셋째 화'인 이슬람 전쟁의 격화되는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믿도록 이끌릴 때 열 왕에게 가해지는 기만을 지목하고 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져 '말하도록' 권세를 받게 되면, 세상은 너무 늦게서야 교황권의 목적이 방지되지 않은 남쪽 성벽으로 몰래 들어온 적을 상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 안식일(다니엘)을 지키는 자들을 겨냥하는 데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박한 위험을 경고해 왔다. 그러나 이 경고를 외면한다면, 개신교 세계는 로마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올무를 벗어나기에는 너무 늦은 때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로마는 조용히 권세를 키워 가고 있다. 그 교리들은 입법의 전당과 교회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로마는 높고 거대한 구조물들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 그 은밀한 구석구석에서는 과거의 박해가 되풀이될 것이다. 로마는 눈에 띄지 않게,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때가 와서 일격을 가하게 될 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로마가 원하는 것은 유리한 고지뿐이며, 그것은 이미 로마에게 주어지고 있다. 우리는 머지않아 로마 세력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며, 또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그로 인해 비난과 박해를 당할 것이다. 위대한 논쟁, 581.

교황권이 자행하는 유엔을 속이는 기만은 그들의 마음에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며, 성경에서 자주 예증되는데, 다리오 왕의 이야기가 이 진리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기만은 먼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그 후 온 세상에서 반복된다. 이 진리는 엘리야와 이세벨의 이야기에서, 또 세레 요한과 헤로디아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서도 확인된다. 이슬람이 열방을 격분하게 하는 일은 교황권이 사용하는 술책으로, 전 세계의 안식일 준수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유리한 입지를 교황권에게 제공한다.

이슬람에 대한 첫 언급은 성경에 이스마엘이 등장하는 것이며, 세상의 끝에 이슬람에게 규정된 역할, 곧 세상을 전반적인 공황 상태에 빠뜨려 사람들이 어떤 제안이든 해결책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역할이 있다. 바로 그것이 속임수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 속임수는 유엔(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들의 왕국(일곱째 왕국)을 교황권(짐승)에게 넘겨주기로 동의하게 만든다.

다리오가 보여 준 기만과 다른 예언적 기록들은 이슬람이 열방을 분노하게 하는 역할과 교황권이 유엔에 의해 파괴되는 궁극적 이유를 포함하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덟째 왕국의 수수께끼, 곧 '일곱에 속한' 자가 현대 바벨론의 머리로 세워지는 것과 관련된 정황을 밝혀 준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은 매우 복잡한 예언적 표상이지만, 그 이해는 'line upon line'이라는 방법론을 적용할 때에만 가능하다.

다음 글에서 다니엘서 6장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백성으로서 이 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때, 우리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113쪽.